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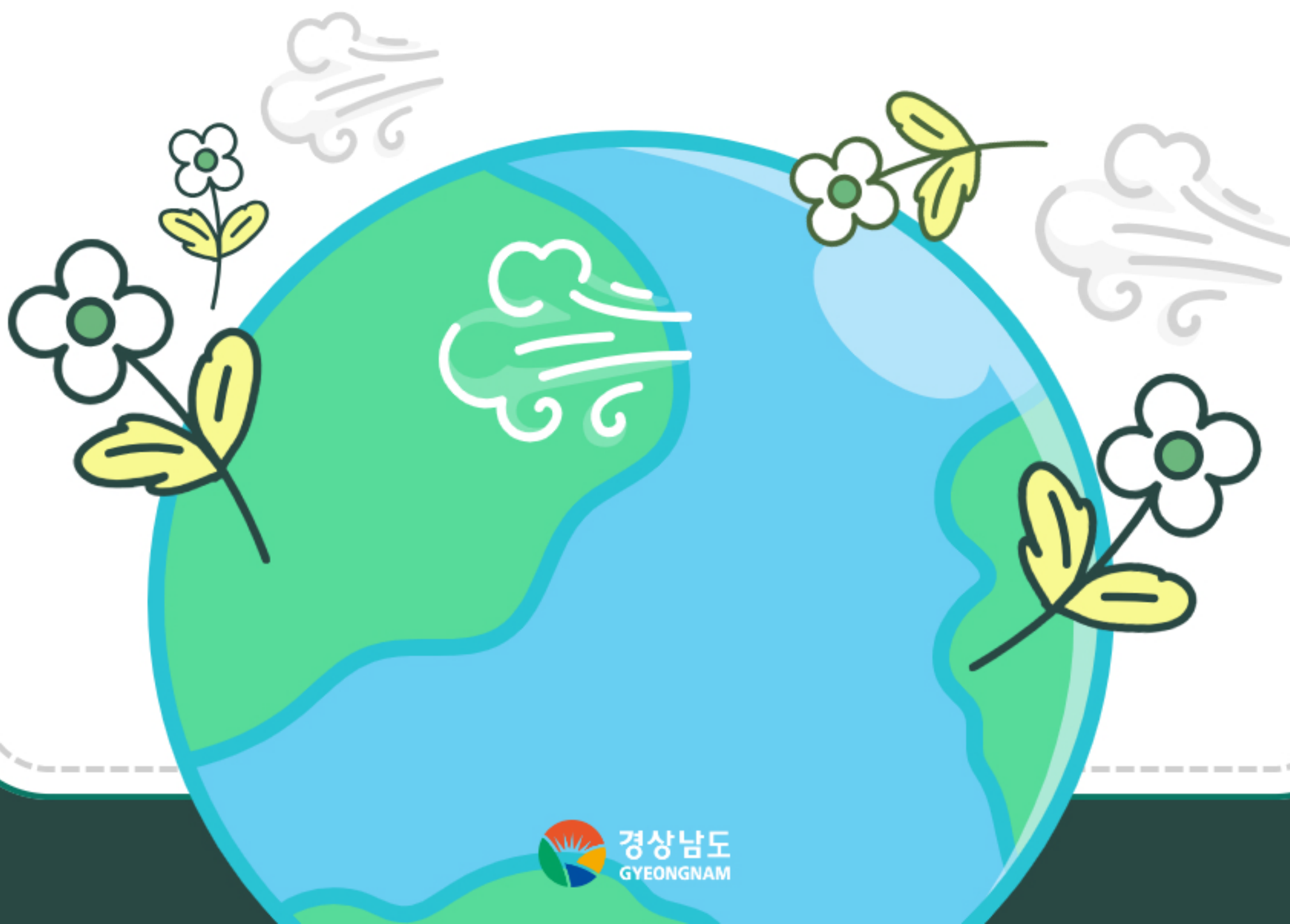
경상남도
GYEONGNAM

이제부터

성묘에는 조화 대신 생화

매년 경남에서 버려지는 약 177톤의 플라스틱 조화

묘소에 놓여진 플라스틱 조화는
바람에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
토양 오염 등 지구 환경에
해를 끼치고 있습니다.



경상남도
GYEONGNAM